

1. 서론

최근 한국의 TV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는 국경을 초월한 교류기반을 형성하고,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우호관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 등에서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송되기 시작한 '겨울연가(일본명 '冬ソナ')'는 2004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와 한국영화 상영(대표작 '쉬리')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일본인의 대 한국 관심을 단시간에 우호적 태도로 변화시켰다. 물론 처음 '겨울연가'와 '겨울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의 인기가 폭발적인 선풍을 일으켰을 때, 일본의 미디어와 평론가들은 표층적이고 일과적인 열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서 '한류 붐'은 확산 일로에 있다.

'한류 붐' 이전의 일본인의 한국관이 과거에 한국을 통지한 '구종주국'으로서의 우월감과 차별의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한류 붐'이 시작 된 이후 일본인들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증폭되고 있다. 일본 NHK 한글강좌 텍스트의 판매실적은 2001년에는 8만부였던 것이 2008년에는 22만부로 증가했다. 영어 텍스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으로의 유학생은 2003년에 12,314명이었으나 6년 후인 2009년에는 63,952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일본의 연구자, 평론가들은 이러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한국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류 붐'으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관의 변화를 분석한 다양한 논문과 평론서가 출판되었으나, 한국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논문과 평론서의 분석과, 일본인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한류'로 인한 일본인의 한국관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본에서 '겨울연가' 시청에 관한 고찰

2-1 '겨울연가'의 방송 양상

한국 KBS에서 2002년 01월 14일부터 2002년 03월 19일까지 총 20부작으로 방송된 "겨울연가" 는 일본에서 2003년 4월에 처음 방송되었다, NHK 위성방송에서 매 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었는데, 6월-7월 평균 시청률은 1.1%로 위성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毛利,2004:21). 그 후,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12월에 재방송 되었고, 높은 인기에 힘입어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NHK 지상파 방송에서도 23시 10분에 방송되었다. 2004년 3월 '겨울 연가'의 주인공인 배용준의 도쿄 방문을 계기로 '겨울 연가' 붐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관동지방이 14.4% (최종회 2

0.6%), 관서지방이 16.7% (최종회 23.8%) 를 기록했다. 드라마가 심야에 방송되었다는 점과 일본의 골든 타임 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으면 성공이라 일컬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겨울 연가'의 시청률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설 '겨울 연가'의 판매 부수는 상하권 합계 122만부(2004년), 비디오·DVD는 33만 세트(2003년 - 2004년)의 판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한류' 선풍을 일으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겨울 연가'의 인기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NHK는 2012년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새롭게 편집된 영상을 방송하기도 했다.

2-2. '겨울 연가' 시청에 관한 고찰

毛利(2004)는 '겨울 연가' 시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겨울 연가' 시청의 다양성이다. 즉, '겨울 연가'의 시청자 층은 다양한데 '겨울 연가' 이외의 한국 드라마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 '겨울 연가'의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에게만 흥미가 있어, 방안 가득 배용준의 포스터를 붙이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전형적인 '윤사마 팬'¹ 등이 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시청을 들 수 있다. 반복 시청의 정도는 다양한데, 두 번 내지 세, 네 번 시청한 사람에서 열 번 이상 시청해서 대부분의 대사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오타쿠 적인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다. 세 번째로 오타쿠 적인 시청과 인터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겨울 연가'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드라마 자체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들이나 배우들의 에피소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나아가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의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하면서 '겨울 연가'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겨울 연가'를 둘러싼 이야기성은 무한대로 증식된다. 이 이야기성은 한국이라는 국가, 문화, 사람들이 교차하는 장소가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겨울 연가'의 팬들은 드라마의 배경에 있는 한국의 '이야기성'을 발견하고, 재구성하며 소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능동적인 시청자와 테크놀로지를 들 수 있다. 많은 일본인들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KBS, MBC, SBS 등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인터넷 시청을 위해 TV한국어강좌 등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심지어 드라마의 한국어 시나리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인터넷 번역사이트를 사용해 일본어로 번역한 뒤, 대조해 가면서 한국어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기존의 미디어로는 한국 드라마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관계로 인터넷 이용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겨울 연가'가 일본 여성에게 미친 영향

毛利(2004:16)는 '겨울 연가'는 일본인에게 세 가지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드라마로

¹ 일본에서는 '겨울 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을 대부분 '윤사마'로 칭한다.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겨울연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관계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방송되기 이전에도 미미한 형태로 한국문화 수용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나 한국영화 붐, 일부에서 일고 있는 한국 붐(여행이나 음식 여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일본과 한국의 거리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겨울연가'와 주인공 배용준의 인기는 기존의 한국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두 번째로 '겨울연가'가 특별한 이유는 이 드라마로 인해 중고년 여성팬의 존재가 클로즈업 된 점이다. 지금까지 대중문화연구에서 다루어진 문화의 주체는 '젊은층' 등 특정의 세대나 집단으로, 대중문화는 주로 서브컬처 혹은 주변문화로 간주되어 왔다. 세 번째 특징은 '겨울 연가'가 단지 드라마 시청을 넘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확대되고 있다. '겨울 연가'의 팬들은 드라마 시청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전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팬미팅을 조직하거나 한국여행('겨울 연가'투어)에 참가하거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겨울 연가'를 통해 일본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터인 田代는 한국드라마의 매력을 현실과는 다른 세계,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을 제시한다는 점(2009:10), 심금을 울리는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과 고상한 언어 표현, 그러한 분위기에 걸 맞는 감성적이고, 기품 있고, 청량감 넘치는 배우들(2009:12)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幸津(2010:202)는 '겨울 연가'는 팬터지면서도 현실을 배경으로 한 나름대로의 리얼리티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들의 사고에 구체성을 부여한다고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시간적으로 현대 한국의 현실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단순한 추상적 표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유교적 전통 하에서의 가족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삶의 참 모습에 관해)를 느끼게 한다. 이 드라마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양식에 관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드라마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즉, 우리는 문화적 전통적으로 한국과는 다른 일본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현대라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공통의 과제를 짚어낸 존재라 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판타지의 형태로 묻고 있다. 따라서 이 드라마가 '사회현상'으로 거론된다면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염원에 기인한다.

극 중 주인공인 '준상'의 역할을 분석한 岡野(2006:41-43)는 "'준상'은 남성성을 과시하

는, 이른바 가부장적 권력의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런 점에 여성들이 반한 것 같다. 서양의 근대 역사 중 매우 훌륭한 부분과 아시아적 아름다움, 예절, 부드러움, 스토이크함 등 동서양을 모두 아우른, 하이브리드한 존재하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 영화나 드라마는 성애 묘사가 과할 정도로 많이 나와 식상할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남녀 관계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가슴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다. '준상'은 여성들의 이상적인 남성상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러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일본인들까지도 감동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가 매우 발전하고 성숙한 점을 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겨울 연가'를 노스탈지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田代는 '스토리가 재미있다. 처음에는 예전에 일본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출생의 비밀, 사건, 사고, 기억상실, 부모자식 관계, 어렸을 때부터의 인연, 불화, 드라마틱한 전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보고 있다 보면 스토리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성, 변함없는 사랑, 순수함 등 내면적인 것에 끌리게 된다(2006:58)'고 평가하고 있다. .

일본인이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는 이유를 분석한 小倉紀蔵(2004)²는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한'의 개념이 한국드라마의 매력이며, 일본인들이 공감하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선행연구

3-1 한류 이전 일본인의 한국/한국인 이미지

일본의 한국에 관한 공식적인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교적 리버럴리스트나 좌파식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적 표현으로, 식민지역사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본의 진지한 반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한국관이다. 두 번째는 편협한 내쇼널리즘과 역사에 대한 무반성으로 생겨난, 차별 의식과 편견으로 가득 찬 한국관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디어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자주 분출되는 '본심'이다³.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坂西(2005)는 근대화를 목표로 '탈아입구'를 추진한 명치정부⁴의 국책으로 인해 조선의 이미지가 날조되어, 조선은 일본보다 뒤떨어진 국가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遠森도 1885년 8월에 발행된 '태양'이라는 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해, 당시 일본인의 조선관을 '조선은 청국의 속국으로 독립한 적이 없고, 국민은 나태하고 파렴치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사회는 말할 수 없이 부패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일본

² 韓国ドラマ、愛の方程式,2004,ポプラ社

³ 毛利嘉孝(2004:44-45).

⁴ 명치시대는 1867년 2월 13일 ~ 1912년 7월 30일에 해당함

제국이 조선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조선지배의 대의명분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인식은 쇼와시대⁵에도 이어져, 오늘날 연장자들이 조선의 태만함과 이를 개혁한 일본의 공적을 맹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월 의식이 뇌리에 깊이 스며있기 때문이다⁶. 특히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많은 일본 심리학자들도 범죄의 종류, 정도, 풍속, 관습, 지적 능력, 민족성, 성격 등에 관한 일본인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선인들이 문화적 수준이 낮고 일본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⁷.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주하거나, 빈곤 타개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일본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최하층민으로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직후, 일본 사회에는 폐쇄감과 불안감이 팽배했고,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의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해소대상으로 전락했다.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의 치안과 경제를 교란시키는 존재라는 편견이 강하게 자리잡았다(歴史教育研究会・歴史教科書研究会,2007)⁸.

平田는 일본에서 '겨울 연가' 붐이 생성된 이유를 상호텍스트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2004:64). '우선, 아시아 붐과 아시아 붐의 연장선 상에서 나타난 한류의 흐름의 영향이 크다. 이미 준비 기간을 거친 한류의 흐름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방영된 '겨울 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일본인의 한국 관광이나 한국 대중문화 수용에 일본 여성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는 대중문화를 이용하여 한일 간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무화(無化)시키려는 국가 권력의 움직임이다. 대중문화의 유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계기로 한일 간에 숙제로 남아 있는 역사 문제 해결과, 일본 대중문화 완전개방에 소극적인 한국의 태도에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4년, NHK 예비사와 회장이 '일한 양국의 상호 이해에 공헌했다'는 명목으로 배용준에게 수여한 감사장은 이러한 의도를 상징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사실 岩淵(2001)가 지적하듯이 일본은 대중문화를 아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무기로 사용한 역사가 있다. 세 번째로 한국 드라마의 '친밀성'과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드라마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본 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글로벌한 소비 문화를 스토리의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라는 로컬의 문맥을 견비하고 있다(2004:65).

岩淵(2004:116)에 의하면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의 제작자들은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여, 일본과는 다른 종류의 매력을 갖춘 드라마를 계속 제작하고 있다. 한국의 TV드라마는 다른 장르 즉, 영화나 음악 등과 함께 동아시아 시장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⁵ 쇼와시대는 1926년 12월 25일~1989년 1월 7일

⁶ 遠森 慶(1998:76).ちょっと待って!韓国—“不慣れな先進国”のとまどい. 三交社

⁷ 長谷川典子(2011)「韓流ドラマ視聴による韓国人イメージの変容—日本人学生へのPAC分析調査結果から」北星論集(文)第48巻 第2号. pp.13-33

⁸ 長谷川典子. 전개 논문에서 재인용.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족관계는 일본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고, 서양 문화보다도 현실감을 느끼거나 동경의 대상으로서 문화적 친밀성을 느끼고, 동시에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금까지도 반일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은 한류의 수용과 한류의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 간에 미디어문화를 통한 폭넓은 교류가 진전함으로 인해서 양국민의 상호인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한일 양국의 역사적 화해를 촉구해 가는 것에 큰 기대가 모아져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⁹.

한국의 반일 감정 또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豊田는 '한국에서 일본은 항의, 비난, 배격, 탄핵, 증오, 날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인은 일본인과의 우호관계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의 존재 이유는 기분전환, 카타르시스, 스케이프고트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94:18-19). 北岡도 豊田 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식민지 문제를 핑계로 반일이데올로기에 의해 일본을 비난한다. 한국의 비난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감정형 민족이다. 일본이 침묵하기 때문에 한국은 기어오르고, 고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996:73). 또한 한국은 독자적인 대중문화를 갖지 못하고 가요나 뮤직비디오 등 일본이나 미국 것을 베끼고 있다¹⁰는 평가도 있다.

3-2 한류 이후 일본인의 한국/한국인 이미지 변화

일본에서 '겨울 연가'는 드라마 자체의 인기를 넘어 일본인의 우호적 한국 이미지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水沼(2011:11)는 '일본인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차별의식도 편견도 단숨에 넘어섰다. 일본인이 한국을 격하하고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毛利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겨울 연가' 시청을 통해 한국에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다¹¹. 그룹 면담을 통해 일본의 '한류 붐'을 분석한 毛利는 다음과 같이 실례를 들고 있다. 50대 여성 I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전쟁, 38도선 정도였다. '겨울 연가'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과 접촉한 느낌이다." 역시 50대 여성 L 또한 "'겨울 연가' 시청 이전에는 한국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한국인의 대부분이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이

⁹ 岩淵功一(2004:123).韓流が「在日韓国人」と出会ったとき—トランスナショナル・メディア交通とローカル多文化政治の交錯. 毛利嘉孝 (편). 日式韓流. (pp 112-153). 東京: せりか書房

¹⁰ 遠森 전개서:108

¹¹ 毛利(2004).

다. '겨울 연가'를 시청하게 되면서 한국인이 일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놀랐다. 또한 휴대전화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L은 '단순히 한국에 관해 알지 못했다기 보다는 평소 교육이나 그 외 다른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毛利, 2004:42)고 일본정부의 의도적 은폐를 강조했다. 수용소 근처에서 성장했다는 60대 여성 A는 "조선인은 싸움을 잘 하고, 목소리가 크다. 그런 이유로 솔직히 말해 조선인을 무시했었다. 온사마가 내 생각을 바꾸었다. '겨울 연가'로 한국을 알게 되었고, 일본문화가 한국에서 왔고 일본과 한국은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毛利, 2004:45)고 응답했다.

이처럼 40대, 50대 여성들이 '겨울 연가' 시청 이전에 한국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과는 대조적으로 30대, 40대 여성들은 '겨울 연가' 이전에도 한국에 관한 약간의 이미지는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표층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30대 여성 M은 "어린 시절부터 제일 한국인 친구가 있어 친구를 통해 한국에 관한 약간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한국여행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 때의 인상은 대체로 한국인은 대충주의에 섬세하지 않다든가 패션이 일본의 예전 모습과 흡사하다는 정도였다. '겨울 연가'를 통해 한국과 한국어라는 단어에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겨울 연가'의 심플한 패션이 마음에 든다(毛利, 2004:43)고 응답하고 있다.

毛利와의 면담에 참석한 많은 응답자들이 '겨울 연가'의 시청을 통해 한국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2004:41). 응답자 H는 "'겨울 연가'를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어딘지 모르게 뒤쳐졌다고 생각했었지만 한국인이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일본의 세련된 레스토랑과 똑 같은 곳에서 식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현재는 매주 2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毛利,2004:43)고 응답했다. 40대 C는 '한국은 먼 나라로, 일본을 흉내 내는데 급급한 나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가까운 나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인식만큼은 역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일 한국인이나 서양 친구들은 있지만 한국인 친구는 없다. 한국 여행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곳에 가면 복잡한 기분이 든다. '겨울 연가'를 만나기 전에는 미국문화를 좋아했다. 한국이나 아시아에 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라크전쟁을 경험하고, 미국의 위선에 실망한 반대급부로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여행을 통해서 느낀 점은 한일관계의 성숙이나 진전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다. 그 어려움은 역사 인식에 기인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자신과 같은 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毛利,2004:46-47)며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岩淵(2004:124)도 '겨울 연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岩淵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사회, 문화,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거나 일본사회가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던 한국에 관한 오리엔탈리스트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찬 것

이었는데 깨닫게 되었다고 부연하고 있다. 岩淵는 '겨울 연가'의 시청자가 한일 관계를 바꾸어갈 능동적인 주체가 될 커다란 가능성도 보인다(2004:124)고 희망적으로 분석했다.

長谷川典子(2011)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국 드라마 시청 전과 시청 후의 한국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드라마 시청 전의 한국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 TV나 수업을 통해 2차적으로 습득한 표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스테레오 타입의 이미지가 전부였다. 그러나 드라마 시청 후에는 한국 문화의 특징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다. 예를 들면, '가족간, 친구간의 관계가 각별'하고, '정 이 깊다'등 인간관계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해 친근감과 호감도가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 문화와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 형태, 거리 풍경,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 등의 유사점에 착목'하게 된 점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의 인식은 상호 이해의 첫걸음으로 이러한 인식은 한일관계 개선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사회학적 관점에서 한류를 분석한 平田(2004)에 의하면 1970년대~1980년대 일본인 한국관광객은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관광객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남성들의 한국 관광은 대부분 한국 여성을 상품화한 기생관광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 여행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페미니즘 관점에서 일본인의 한국 관광을 분석한 平田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기생 관광의 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平田의 인터뷰에 응한 여성 한국 관광객 중에는 "남편이 여러 번 한국 기생관광에 참여한 적이 있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다수 있다. 이 시대 일본인의 대 한국관은 편견과 남성중심적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¹²고 볼 수 있다.

일본여성의 한국 관광은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금씩 증가되기 시작해 2004년 상반기에는 일본인 방문객의 39%를 차지했다. 平田는 '겨울 연가'를 한국대중문화의 수용자 층을 단숨에 넓힌 작품으로 꼽고 있다(2004:63). 물론 1990년대 초부터 한국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소비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관광이나 유학 중에 만난 한국인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된, 20대, 30대의 비교적 낮은 연령대이다. 1990년대 일본 여성의 한국대중문화 소비가 관광이나 유학 등을 계기로 한 비교적 젊은 세대가 중심이었다면, '겨울 연가'는 그러한 한정적 소비를 거의 무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平田의 주장이다.

심포지움 「ジェンダーで読む〈韓流〉文化の現在(젠다로 읽는 〈한류〉문화의 현재)」에서 水田(2006:87)는 '중고년 여성들은 전후 일본 사회의 황폐와 경제적 역경을 경험'했고, 국가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아시아에 미친 부모 세대의 경험과 기억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겨울 연가'를 통해 '자신의 눈으로 새롭게 한국의

¹² 平田(2004:60)

현실을 보고, 생각하고', '일본의 전후, 한일 관계, 재일 한국인 문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바를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4. 한류 드라마의 효과 연구 결과

이번 연구는 도쿄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 20명을 상대로 설문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20명 중 16명이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들로, 한국 드라마 시청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영화, K-POP 등 한국문화 전반에 걸쳐 흥미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14명으로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이전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응답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재일 한국인 친구가 있거나 일찍부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류 붐 이전에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나 한국 대중문화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한류 붐 이후 주위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이전과는 달리 한국문화를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겨울 연가' 시청이 한국 드라마 시청 내지는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4세의 여성은 '겨울 연가' 시청을 계기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한국 드라마는 눈물과 유모어가 섞여 있어 적당한 슬픔과 적당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응답했다. '겨울 연가'를 보고 한국에 2회 방문했으며,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 50세의 여성도 '겨울 연가'를 보고 한국 드라마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극을 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에 알게 되어 새로운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 드라마 시청 후 친근감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여 민속촌에 가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여성의 친구인 52세의 여성은 친구의 포교¹³로 인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 일본드라마는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관계가 농후해서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 질 때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 비하면 일본 드라마는 너무 가볍고 재미가 없다고 응답했다. 47세의 여성은 한국드라마는 심리묘사가 뛰어나다. 표현방법이 풍부하고 남성의 무뚝뚝한 듯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이 좋다. 예전에는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드라마 시청 이후 한국 남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사극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68세 여성은 대장금, 선덕여왕을 특히 좋아해서 10회 이상 보았다. 한국전통의상이나 건축물이 아름다워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을 땔 수가 없다. 특히 단청 문양의 색체가 아

¹³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후 한국 드라마 시청을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포교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름답고 색채감각에 압도된다고 응답했다. 59세의 여성은 한국 드라마가 보여주는 순수한 사랑이 감동적이다. 끈끈한 가족관계, 친구관계가 좋아 보인다.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친절함에 감동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해서 불편할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 36세의 여성은 회사 업무 관계로 한국 출장을 몇 번 다녀왔지만 한국이나 한국인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겨울 연가'를 시청한 후 한국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즘은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솔직함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자 중 유일한 남성인 76세의 남성은 부인이 '겨울 연가'의 팬이라 같이 시청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사극을 좋아하는데 이산, 허균, 주몽 등을 좋아한다. 극중 왕의 훌륭한 품성에 매료되었다. 한국인들은 호심이 깊고 정의감이 투철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5. 결론

오늘날 문화의 트랜스내쇼날 이동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글로벌과 로컬이 복잡하게 얽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내에서의 문화 소통의 흐름이 보다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⁴. 한류 붐으로 인한 한일 대중문화의 교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水沼가 주장하듯이 한류는 한국의 이미지 증진에 공헌하고 국가브랜드까지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2011:277), 일본의 한류는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20~30대 여성과 남성이 중심이 되는 K-POP 붐과 40대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드라마 붐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30대 K-POP 선호 층은 한국, 한국인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단지 음악이나 가수들의 아름다운 외모(또는 남자다운 외모)와 퍼포먼스에 열광하고 있을 뿐,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반면 한국 드라마 선호 층은 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의 관습과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한국과 한국인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일본인들이 '겨울 연가'를 통해 느낀 한국의 이미지는 한심하고 부드러운 한국남성상, 끈끈한 가족애,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발전된 테크놀로지, 일본인이 잃어버린 유교적 의례와 전통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적, 문화적 불균형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毛利(2004:47)가 주장하듯이,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본인 개인의 사적인 기억과 역사 인식을 동시에 새롭게 재구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¹⁴ 平田由紀江(2004).まなざす者としての日本女性観(光)客 - 『冬ソナ』ロケ地めぐりにみるトランナショナルなテキスト . 毛利嘉孝 (편). 日式韓流 . (pp 51-82). 東京 : せりか書房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대한 담론이 거의 제한되어 온 일본 사회에서 한류 붐은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을 통해 일본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해왔던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가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¹⁵,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한국인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일본의 한류는 단지 일본인들의 대 한국/한국인관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여성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켰다는 점 또한 한류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¹⁵ 이번 발표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반한' 혹은 '혐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城西友秀(2005).『近代日本における人種・民族ステレオタイプと偏見の形成過程』(『근대일본의 인종・민족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의 형성과정』)多賀出版
- 岩淵功一(2001).『トランスナショナル・ジャパナーアジアをつなぐポピュラー文化』(『트랜스내셔널・재팬아시아를 연결하는 파플러문화』).岩波書店
- 岡野幸江(2006).チュンサンに見る韓国の男性像の新しさ(준상을 통해 보는 한국 남성의 새모습),城西国際大學ジェンダー・女性学研究所(編)ジェンダーで読む<韓流>文化の現在. pp36-45
- 北岡俊明(1996). 韓国とディベートする.総合法令出版株式会社
- 田代親世(2006). <ヨン様ブーム>を考える(윤사마 붐을 고찰함),城西国際大學ジェンダー・女性学研究所(編)ジェンダーで読む<韓流>文化の現在. pp57-70
- 田代親世(2009). 恋する韓流(사랑하는 한류).朝日新聞出版
- 豊田有恒(1994). いい加減にしろ韓国—日本を嫉妬し、蔑む真の理由(멋대로 해라 한국-일본을 질투하고 경멸하는 진짜 이유).祥伝社
- 水沼啓子(2011).大和撫子はなぜ韓流にはまるのか?(일본여성은 왜 한류에 매료되는가?)双葉新書
- 遠森 慶(1998).ちょっと待って!韓国—“不慣れな先進国”のとまどい(잠깐! 한국-어설픈 선진국).三交社
- 長谷川啓(2006). 韓流ブームとジェンダー—<純愛>,そして女たちがみつめているもの(한류붐과—<여성-순애>, 그리고 여성이 바라보는 것).水田宗子外(編), 韓流サブカルチャーと女性,至文堂. pp47-67
- 毛利嘉孝(2004).『冬ソナ』と能動的ファンの文化実践(『겨울연가』와 능동적 팬의 문화실천).毛利嘉孝(편). 日式韓流. (pp 14-50). 東京:せりか書房
- 水田宗子(2006).<物語>としての「冬のソナタ」(<이야기>로서의「겨울 연가」), 水田宗子外(編), 韓流サブカルチャーと女性,至文堂. pp13-23
- 幸津国生(2010).『冬のソナタ』の人間像—愛と運命—(『겨울 연가』의 인간상-사랑과 운명).花伝社